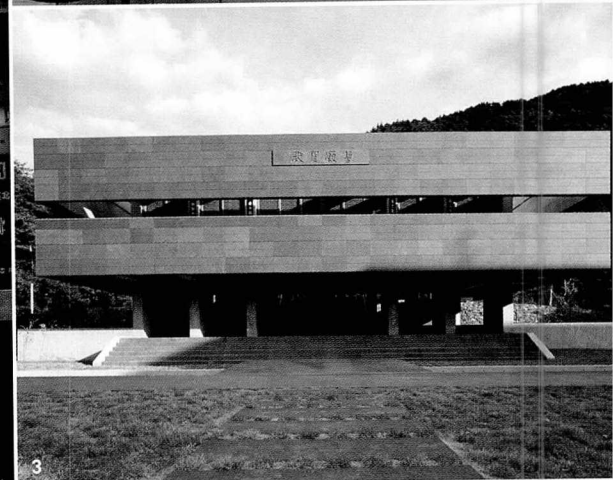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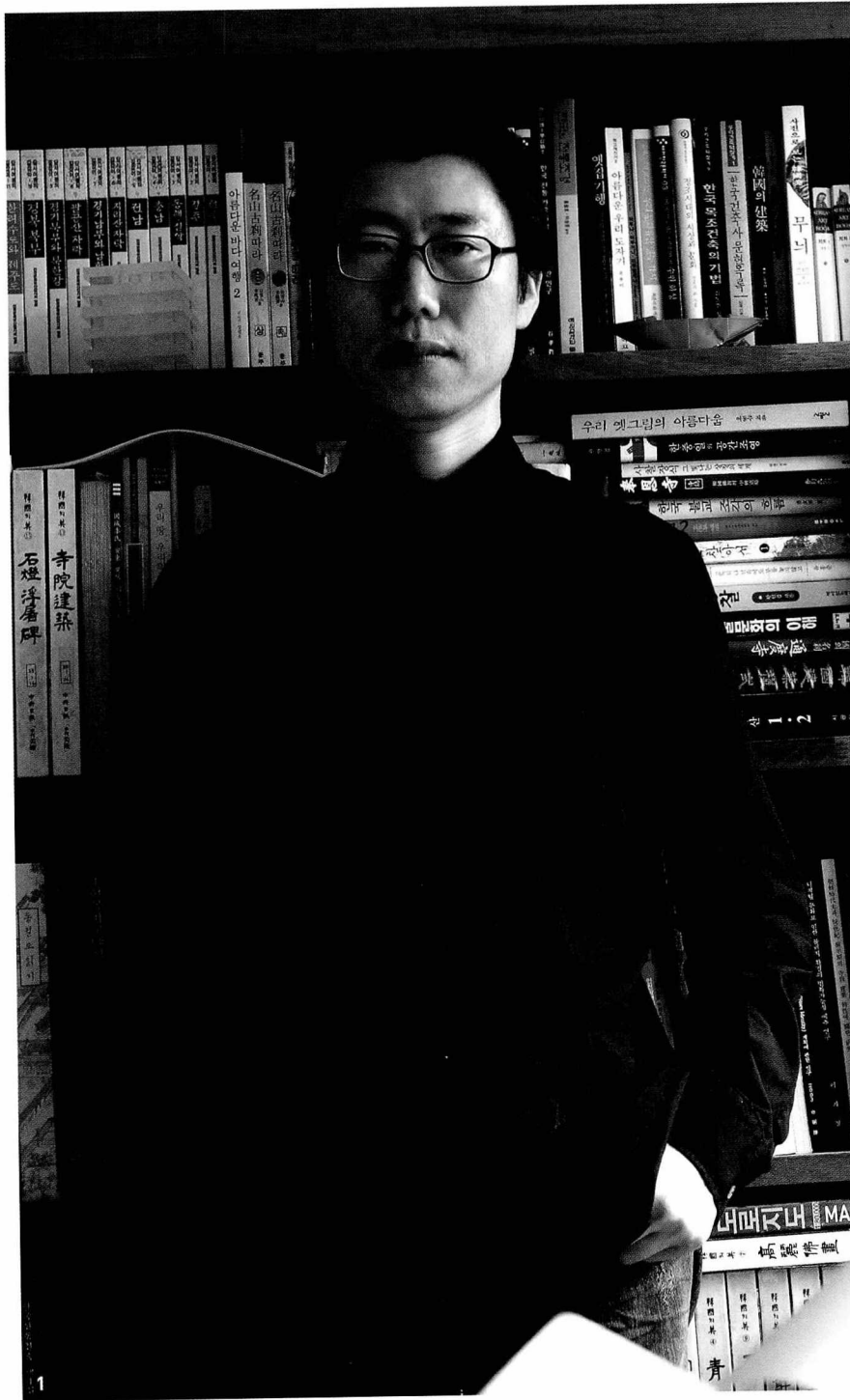


건축 디자이너 김개천

건축에 무한(無限)을 담고 싶다

김개천은 건축가이면서 건축가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호칭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굳이 불려야 한다면 디자이너로 불리기를 바란다. 문학과 철학, 종교에까지 조예가 깊었던 옛 선비들의 삶을 동경한다는 그는 디자이너야말로 선비에 가장 가까운 현대적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에디터 | 이기원 · 사진 | 노현우





5



6

1 건축 디자이너 김개천을 '불교'라는 레테르로만 묶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2 김개천의 현대적인 감각을 알려주는 작품 중 하나인 동화기업 휴게실 '나무공간'. 3 군더더기 없는 무형의미를 보여주는 담양 '정토사'. 4 거제도 '30평 집'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가정을 염두에 두었다. 5 김개천의 대표작 '만해마을'에서는 철학적인 냄새가 가득하다. 6 김개천의 역작이 될 '강하 미술관'은 3년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

건축 디자이너 김개천을 만나기 전 예상했던 이미지는 이렇다. 한 손에 부채를 든 채 생활 한복을 입고, 좋은 찻잔에 잘 우려낸 찻물을 따라 마실 것 같은 사람. 그도 그럴 것이 김개천은 '선(禪)적인' 색채의 건축으로 이름이 높은 건축가다. 이미 많은 유명세를 탄 설악산 '만해마을', 담양 '정토사' 등은 김개천의 내면 세계가 압축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이다. 하지만 교통 체증으로 20분가량 늦은 그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가 몸담고 있는 국민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연구실의 문을 열었다. 큰 키에 뿔테 안경, 청바지와 은은한 톤의 베이지색 재킷을 세련되게 입은 그는 부채 대신 최신형 휴대폰을 손에 쥐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 메이커를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김개천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유학을 다녀와 유명 설계 사무소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건축학도의 엘리트 코스를 밟지는 않았다. 좁은 연구실 안에서 제도기를 손질하는 대신 20대에 이미 전 세계의 건축 현장을 누비며 실무 감각을 익혔다. "건축물을 직접 접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항상 건축이 뭔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던 시기였으니까. 물론 당시에는 한국 기술이 뒤쳐졌기 때문에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몇 년을 그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 깨달음이 생겼어요. 건축은 부처구나, 하는. 물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슬쩍 웃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짓던 김개천은 건축 디자이너가 이전에 불교철학 박사이기도 하다. 불교 사상에 관한 깊은 이해가 있기에 그는 한국의 이름난 사찰들을 건축적인 입장에서 둘러본 <명목의 건축>이라는 책도 펴냈다. 하지만 '선(禪) 전문' 건축가라는 타이틀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실 내가 설계한 약 300채의 건물 중 사찰은 5~6채 정도예요. 많아야 7~8채일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선 건축가라는 얘기를 하고, 주

위 건축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특별히 일회일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역량이 그 정도로 워낙 뛰어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니까."

그의 말대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그는 다양한 스타일의 건축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름도 특이한 거제도의 '30평 집'이나 서울역 근처의 '동부주택전시관' 같은 건물들은 건축 디자이너 김개천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임을 알려준다. 그 중에서도 용인 '팔복교회'는 김개천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다. 예산이 부족해 십자가도 음각으로 파내야 했던 이 소박한 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과도한 웅장함도 없이, 신과 신도들이 함께 즐거울 수 있을 공간만을 생각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떤 압박감보다 편안한 기쁨이 넘쳐난다.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는 곳이 아닌 인간과 신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란 건축가의 사상 덕분이다.

그런 김개천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건축물은 우주와 속세를 동시에 느끼게 한 타지마할. 그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축물이기도 하다. "좋은 건축이라는 건 우주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무한(無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 거죠. 굉장히 편안한 느낌도 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도 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창역할도 할 수 있는."

김개천이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는 벌써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경기도 양평의 '강하 미술관'이다. 시대를 대표할 만한 건축물을 원하는 소명 의식 가득한 클라이언트는 시간 제한도 두지 않고, 이 건축가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 그리고 김개천은 자신의 평생 역작이 될지 모를 이 건축물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 3년 안에 완공될 예정인 이곳에서 사람들은 아름답다는 말로는 모자랄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